

25

기도하시는 예수님

요 17:1~25

찬송가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 21장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오늘 배울



1.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일을 기도 가운데 행하셨음을 압니다.
2. 연약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함을 압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삽나이다 저희를 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니이다 (요 17:15~17)



말씀을 이해하기

기도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자 부르짖음이며, 거듭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데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그분께 의탁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항상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시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되었고, 사역이나 이적 역시 기도 가운데 이어졌습니다. 많은 일로 저녁 늦게까지 분주하셨을 때에도, 그리고 사역으로 인해 명성이 높아졌을 때에도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으셨으며, 열두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 마지막은 기도의 연속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할 때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고통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까요?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 5:7)

who, in the days of His flesh, when He had offered up prayers and supplications, with vehement cries and tears to Him who was able to save Him from death, and was heard because of His godly fear (Hb 5:7)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예수님은 왜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떤 응답을 얻으셨나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 ①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을 위한 기도 (1~5절)
 - ② 제자들을 위한 기도 (6~19절)
 - ③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 (20~26절)

- ②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하여 적어 봅시다(마 26:36~46, 눅 22:39~46).

예수님	제자들

- ③ 기도의 습관은 경건생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눅 22:39). 나의 기도 습관은 어떠한지 반성해 봅시다.

구분	나의 기도 습관
잘하는 점	
부족한 점	
다짐	

- ④ 한 주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제목을 적고, 왜 그렇게 세웠는지 교제해 봅시다.

①

②

③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신 4:7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이

눅 22:39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화

눅 22:40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

눅 22:44

↓

롬 12:12

↓

골 4:2

↓

골 4:3



알렉산더와 병사

알렉산더의 병사가 소원을 말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의 생각에 따라 궁색하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너무나도 큰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왕의 출납담당자는 그것을 지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왕에게 찾아 갔습니다.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있어서 왕에게 걸맞는 것을 요구했다. 그러니 그가 원하는 것을 모두 주어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같고 그의 길이 우리의 길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사 55:8). 하나님 앞에 작은 탄원이나 좁은 소원을 가지고 와서 “주여, 이것들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말하지 마시다. 하늘이 땅 위에 높이 있는 것처럼 그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훨씬 더 높고 그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사 55:9).

그러므로 하나님께 어울리는 큰 것을 구함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이것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엡 3:20)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 4:6)



질문 있어요~



예배와 예배의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배 ‘의식’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에 예배당에 찾아와서 경건한 모습을 꾸미며 예배의식을 행하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과거 이교(異敎)적인 습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요 4:24)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거듭난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성령과 진리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사는 모든 생활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1~2)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것을 말합니다. 자기 몸을 드린다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어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생활이 곧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 자체가 예배의 일부도 되고 또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됩니다. 예배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